

보도시점

2026. 6. 30.(화) 15:00

배포 2026. 6. 30.(화)

서남권 신규 반도체 산단에 일일 65만톤 용수 세부 공급 방안 발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30일 동북댐 현장을 방문하여 동북댐 운영 현황과 활용 방안을 점검하고 서남권 신규 반도체 산업단지에 안정적으로 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세부 방안을 발표했다.

서남권에 새롭게 조성되는 반도체 산업단지에 공급 가능한 가용 수자원은 다음과 같다.

먼저, 동북댐의 여유량 8.8만톤/일 중 5만톤/일 활용하고, 댐 증고를 통해 25만톤/일을 추가하여 총 30만톤/일의 가용 수자원을 확보한다.

주암댐의 생공용수 계획량 중 과다하게 배분되어 미사용되고 있는 7만톤/일 중 5만톤/일과 장흥댐의 여유량 11.9만톤/일 중 10만톤/일을 활용한다.

보성강댐에서 발전용수로 활용하고 있는 용수 중 10만톤/일을 공업용수 용도로 전환하여 공급한다.

* 보성강댐은 주암댐 상류에 위치하나 득량만으로 수계 전환하여 발전 중

나주댐은 기존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던 영산강 하류 말단 지역에 보다 가까운 영산강 용수를 대체 공급하고, 절약되는 댐 용수 21만톤/일은 공업용수로 공급한다.

그 밖에도 광주제1하수처리장의 하수재이용수를 역삼투막 처리를 거쳐 일반 공업용수로 활용할 수 있는 30만톤/일을 확보한다.

* 반도체 산업에서 활용되는 용수 중 50%는 일반 공정용수이며, 하수재이용수를 일반 공정수로 활용하는 사례 존재

한편 해당 산업에는 반도체 생산시설과 협력사들이 입주할 예정이며 일일 65만톤의 용수가 필요할 전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위 가용 수자원 중 동북댐 30만톤/일, 주암댐 및 장흥댐 여유량 15만톤/일, 보성강댐 10만톤/일 및 나주댐 10만톤/일로 일일 65만톤의 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용수 공급 세부 방식과 일정은 해당 기업과 긴밀히 협의하여 세부 추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성환 장관은 “이번 서남권 신규 반도체 산업에 적기 용수 공급을 통해 대한민국이 대도약으로 전환하는 핵심 전략인 메가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끝.

담당 부서 (총괄)	기후에너지환경부 수도기획과	책임자	과 장	김상훈 (044-201-7110)
		담당자	사무관	권민혁 (044-201-7111)
	기후에너지환경부 수자원개발과	책임자	과 장	이상훈 (044-201-7682)
		담당자	사무관	박준형 (044-201-7691)